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

성경: 창세기 1장 26-28절

Tag: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6-28)

나는 창세기 1장 26-28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는 한창 멀었다는 생각을 한다.

26절에는 인간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다.

우리말로 ‘우리’라고 복수로 표현된 것은 히브리어의 특징으로 장엄한 것을 나타낼 때 흔히 복수형을 사용한다. 크신 하나님을 단수로 작게 표현할 수 없어서 ‘복수’로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어서 복수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를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로 해석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곧 사람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 대사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타락과 홍수 심판 이후,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턱없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요 동물들을 가축으로 기르고 있고, 요즘 인기있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산 속에서 홀로 살지만, 나름대로 주변 세상을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27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

-하나님은 충분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

-죄라는 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죄가 등장하면서 인류는 큰 시련을 겪는다.

-일차 홍수로 환경은 대거 악화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줄었고, 수명도 크게 단축되고 말았다.

-이차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란하게 되어 의사소통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전쟁이라는 문제가 인류의 번영을 가로막았다.

-하는 수 없이 인류는 민족 단위로 번영을 구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또한 결국에는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전쟁의 문제는 초대강국의 탄생을 부추겼고, 중국에서는 진시황이, 유럽에서는 알렉산더가, 그 후에 로마가, 그 후에는 징기스칸이, 평화를 만들었다.

-1,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미국이 패권을 쥐면서 세계대전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만약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게 된다면 전쟁의 위협은 커지게 된다.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자 세상에는 본격적으로 거대도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출산의 위협이다.

-저출산은 곧 민족국가의 위협이 되고, 저개발국 외국인 노동자 문제, 외국인의 시민권 문제, 난민문제 등의 골치아픈 일들이 닥치게 된다.

-오늘날 전 세계 메트로폴리탄에서는 저출산으로 걱정들이 많은데, 이는 단순한 원리로 따진다면, 거대 도시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대도시로 몰리는 걸까? 그것은 대도시 인근에 사는 것이 훨씬 다른 지역보다 매력적이고, 편리하고, 활기 넘치고, 직장도 구하기 쉽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이를 키우기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이 문제는 자신의 생존과 다른 문제다.

-아이까지 고려한다면, 주거문제, 결혼, 자녀 양육, 직장, 교육까지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대 도시 안에서 나 홀로 살아남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살만한 집이 없어서가 아니다. 버젓한 집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지방에는 싼 집도 많다. 그러나 지방에는 대도시만한 메리트가 없다.

-비용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녀를 키우려는 욕구가 많아질 것이다.

-즉, 정부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비용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많을 것이다.

-비용 문제 중 단연 집값이 가장 크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경기도로 가고, 고등학생쯤 되면(그동안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아져서) 서울로 온다.

-어떤 경우는 지독스런 학원전전 경험을 자녀에게 뒤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자녀를 아예 낳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 일)

* 가장 중요한 요인은 1950년 이전에는 산아제한에 대한 결정권이

2-30대 부모 자신에게 없었다. 결혼도 부모가 주도적으로 시켰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는 결혼과 자녀 양육의 결정권이 2-30대 부모 세대에게 주어졌다. 피임과 낙태 결정권까지 주어졌다. 자기가 버는 돈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끈 부모들도 늘어났다.

-애정을 쏟고 싶고 귀여워하고 싶거나, 재롱피우는 것을 보고 싶은 본능은? 반려동물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다. 반려동물은 자녀보다 훨씬 비용과 심리적 부담에서 자유롭다.

-그래도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고 싶은 본능은 어찌란 말인가? 본능적으로 자기 보다 더 똑똑한 아이를 갖고 싶은데 확률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 과거에는 다섯놈 낳으면 그중에 똑똑한 한 놈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나 둘을 낳아야 하는데 확률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GMO 자녀라도 가능해야 안심하며 자녀를 낳게 되지 않을까?

-특히 요즘 남자들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은 In 서울/수도권 직장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부를 잘하거나 많이 하거나 해야 한다.-이것부터가 지난하고 고생스러운 과정이다.)

-군대도 갔다 와야 한다. 그러면 25-6세

-직장생활 시작해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면 30세. 직장 잡느라 취준생으로 비정규직으로 헤매면 30을 넘긴다.

-여성심리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여성주의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성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여성주의와 여성심리를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결혼이 가능하다.

-결혼 후 자녀를 낳는다면? 부모 스스로가 양육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오은영박사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친정식구, 시댁식구와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 그래야 애도 봐준다.

-5세만 되면 유치원 교육과정을 걱정해야 한다. 스마트폰과의 전쟁

도 이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삶이 고단한 인생길 그 자체다.

*그러나 인류는 언제나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본능이 있다.

-특히 한국인은 더욱 그렇다.

-앞으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게 될 것이다.

-부모/자녀양육이 가장 좋은 환경이니 옆집에 부모와 같이 살기 운동이 벌어질 것이고, 아파트 한 층에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부모와 자녀를 같이 키우면 세금혜택을 크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

-한쪽은 4인 가구, 다른 쪽은 2인 가구가 들어서면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

-공교육 규모를 줄이고 사교육 비중을 크게 해야 한다.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맘껏 교육하게 해야 한다. 어차피 최종 합격은 기업이나 국가가 걸러내는 것이니만큼 직장을 얻기까지의 양육의 질은 부모 책임이고, 국가는 그 비용을 책임지면 된다.

-국가는 각종 자격시험을 관장하고 전산화 하면 된다.

-교회에는 (세례교육 증명서) -> 세례교인 증명서 발급(1년 유효기간). 현금 증명서(년도별로 발급됨) 전산화 이미 시작됨. (위 3가지 증명서가 취업에 유리한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는 결코벼락공부가 불가능함.- 이 증명서는 필수 서류는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 첨부 가능한 서류들이지만, 기독교적 가치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가치이므로 유리하게 됨.)

*현재 한국은 뜨는 나라. 한국인이 되고 싶은 민족이 많다.

-통일만 되면 북한, 중국의 동북3성, 몽고까지 합하면 1억이 쉽게 넘는다.

-남한에서 현재는 힘겹지만 자녀 교육시켜면 앞으로 훌륭한 인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남한은 선교 대국. 세계 모든 도시에 한국 선교사가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다.

-한국 기독교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이제 곧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젊은이는 세계 어디를 가도 삶의 터전이 있게 되는 셈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강력하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한국인 기독교인 자녀는 더욱 그러하다.

-여러분 축복한다. 자녀가 많으시기를 그 자녀가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그리스도인의 희생적 삶

성경: 누가복음 9장 20-27절

Tag: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21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2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눅9:20-27)

기독교인은 희생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란?

.일단 자생에 성공한 사람.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사람. -훨씬 생존 가능성이 큰 사람. 훨씬 홍보가 잘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수확의 가능성이 없는데 투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 예수님 자체가 희생하러 오신 분(22)

-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와 마귀 자체가 무력해짐.

-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23)

-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다.(24)

-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훼방할 수 없다.

- 기독교인의 희생에는 뿌듯함이 있다.

(우영우 마지막 16회)

알수 없는 감정의 이름 -뿌듯함

- 범인이 자기 남동생, 엄마가 동생은 버리지 않기를 바랍.

- 엄마가 동생은 버리지 않고 희생하게 됨

- 동생의 증언이 재판을 이기는데 크게 작용함.

- 동생의 증언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음이 확인됨.

- 동생은 아직 학생으로, 아는 형의 부탁으로 선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훔치는 일을 하게 됨.

- 아직 해커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음. 범법하지 않음.

- 태수미는 우영우라는 혼외자식 때문에 사퇴한 것이 아닌, 아들의 해킹시도 때문에 사퇴하게 됨으로 크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게 됨.

- 우영우의 희생적 행동 때문에 모두에게 공감을 얻고 어머니의 실수를 되돌릴 수 있게 되어 스스로 뿌듯함을 느낌.

- 비록 금전적 유익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지는 못했을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자의 뿌듯함.)

27.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됨)